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대선 후보와 어묵

미국에서 귀국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귀국 나흘 만에 부산을 찾았다. 당시만 해도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가장 큰 뉴스거리였다. '어묵 1번지'로 잘 알려진 부산 부평시장을 찾은 그는 예상대로 어묵을 먹었다. 당연히 그 모습은 다음 날 주요 지면과 포털을 장식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다. 비단 반 전 총장뿐만 아니다. 언제부터가 정치인들은 재래시장만 찾으면 무슨 공식처럼 어묵 조형이를 든 모습을 연출한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어묵은 서민 코스프레를 위한 소품이 되었을까?

어묵처럼 생선 살을 으깨고 성형해 익혀 먹는 음식은 고대 중국과 조선시대 궁중음식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를 '위완(魚丸), 조선은 '생선숙편(生鮮熟片)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음식이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어묵은 약 1000년 전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는 으갠 생선 살을 반죽해 다마 무 조형이에 발라 구웠다. 그 모습이 마치 부들의 줄기 끝에 달린 열매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마보코'라 불렀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근간이었던 일본은 우리에게 농약처럼 논밭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놀이를 즐겼다. 이를 '덴가쿠(田樂)라 했다.

논밭에서 한바탕 놀다 보면 당연히 허기가 질 터. 들판에 모닥불을 피우고 조형이에 두부·곤약·생선 파우를 끼워 된장을 발라 구웠으니 이 음식의 명칭 역시 덴가쿠라 불렀다.

그런데 들판에서 먹던 음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만들고 즐기던 음식이 누군가에게 만들어 바치는 음식이 되니 즐거움(樂)이 사라졌다. 대선 존경과 공손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오(お)를 붙이게 된다. 너무나 익숙한 '오뎅'(お田)의 탄생 과정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방되자 수많은 일본인과 다양한 일본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 중에 일본의 대중 음식이었던 가마보코와 오뎅도 있었다. 가마보코는 조선인 사이에도 급속히 퍼졌다. 생선을 으갠 소조미료를 더해 기름에 튀겨 낸 가마보코는 배고픈 시민들의 식욕을 자극했다.

가마보코의 인기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했다. 70년대 이미 '국민 반찬'의 반열에 올랐다. 심지어 식량자급률이 50% 아래로 밀렸던 80년대 초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체 식량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근해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수포로 돌아갔다.

상황은 '국민 반찬'다운 명칭이 필요했다. 가마보코·덴뿌라·아부라야게 등의 일본식 명칭에서 떡고기·생선떡 등의 과도기를 거쳐 생선으로 만든 묵이라는 뜻의

'어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에 정착한 오뎅은 원래 일본인이 운영하던 요릿집에서 내던 일품요리였다. 그러다 1930년대 대중적인 술안주로 자리 잡는다. 당시 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에는 '정종과 '오뎅'을 파는 오뎅집이 즐비했다. 이때 오뎅의 주역은 곤약과 두부였다. 가마보코는 그저 조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이 밍밍한 곤약과 두부 대신 쫄깃하고 감칠맛 넘치는 가마보코가 주연을 꿰차게 된다. 어느덧 대중들은 오뎅의 주 재료인 가마보코까지 오뎅이라 부르기에 이른다. 1960년대의 일이다. 이때부터 대중들 사이에서는 어묵이나 오뎅이나를 두고 반세기 가 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1960년대까지 포장마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안주는 참새구이였다. 하지만 1972년부터 시행된 수렵 금지 조치로 참새 수급이 타격을 입었다. 참새가 빠진 자리를 오뎅이 대신한다. 한편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진다. 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오뎅·떡볶이·호떡·핫도그 등의 길거리 음식이 도심에 본격 등장한다.

오뎅의 입장에서 시대의 불행이 곧 기회였던 셈이다. 이때부터 오뎅은 시장 어귀, 학교 앞 분식집, 도시의 버스정류장

과 번두리 등 어디서나 서민들의 허기를 채워 주는 음식이 되었다. 그리고 70~80년대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이들에게 추억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정치인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만무했다. 자고로 정치인의 퍼포먼스는 그림이 그럴듯하고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떡볶이나 호떡은 대체 무얼 먹는지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묵은 조형이를 든 순간 그림이 되고 의도가 분명해진다. 서민 코스프레의 소품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마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후보들이 어묵 조형이를 들 것이다. 언급생심 그들이 어묵과 오뎅에 관한 이구구한 사연을 이해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허구한 날 어묵 조형이를 든 모습은 이제 좀 진부하다. 특히 20~30대 유권자들에게는 아무 감흥도 없다. 어차피 퍼포먼스라면, 최소한 요즘 유권자들이 즐기는 길거리 음식의 종류 정도는 파악하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

이미지 싸움은 결국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 35.6%를 차지하는 20~30대는 보수나 진보냐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진부하나 아니냐'를 눈여겨볼 것이다.

<맛 칼럼니스트>

커피 원장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찍새 손학규가 반갑다

면 오염면 제거하고 무공으로 구두약만 먹여달라는 고객도 있다. 가끔 큰돈(대개 1만 원)거리가 되는 수선업무도 처리한다. 가격대비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기술 위주 노동이다.

누가 더 중요한가에 시대에 따라 다르다. 불황으로 구두 뒤는 비움마저 줄이는 세태에선 찍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반대로 호황 때는 고객들이 잘 닦는 구두댈이를 찾는다. 딱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요사이 뉴스의 인물은 손학규일 것이다. 그가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무슨 개혁회의인가와 합쳤는데 국민들은 입당으로 본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의 유행임이 이로써 시작되는 분위기다. 그가 쓴 몇 권의 책 중에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기업유치를 위해 지구촌을 뒀던 내용을 기록한 '손학규와 찍새 딱새들'이란 책이 있는데 두껍지 않아 훑어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찍새 딱새는 바로 경기도 공무원조직 가운데 해외를 돌며 기업과 자본을 끌어오는 팀과, 그 기업과 자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팀을 말한다.

주로 찍새 역할을 했을 그의 책을 읽어 보면 '뺨'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감동적이다. 정말 경기도 잘살게 하려고 엄청나게 뛰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굳이 보자면 그가 경기지사로서 제직하는 동안

세계 114개 첨단기업에서 14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다시 보이는 건 그가 이미 10년도 전에 대한민국의 취업난과 성장동력 고갈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심조사했다는 점이다. 지도자로서 선견지명이 있다는 얘기다.

그가 쓴 책 중 가장 잘 알려진 '저녁이 있는 삶'은 그가 대선후보 반열에 들어선 2012년, 출마 기자회견 직후 내놓았다. 좌파 스타학자 최장집과 역시 진보적 경제학자 광주출신 장하성이 거창한 주천서를 썼다. 정치인들이 쓴 책은 대개가 자기 자랑 일색이어서 뒤죽박죽이 내뿜어지지만 손의 이 책은 달랐다. 나 같은 벽촌의 사생도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갈등이 첨예화될 때면 몇 번이고 꺼내어 읽는 책이다. 이론과 현장을 가장 잘 배합한 일종의 경세서라고나 할까.

가령 이런 대목은 어떤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저녁 먹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 내가 잘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못살아야 한다는 이분법, 내가 옳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틀려야 한다는 이분법, 이 모든 것에 반대하는 가치가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다" "직업을 구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개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한다는 새로운 가치를 (나는)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얘기도 해선 안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그 수단일 뿐이다"

수많은 다소 뉘어졌지만 그에게는 민자당 출신이라는 추종층씨가 찍혀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좌우를 넘나든 그의 이력이 이 시국에는 변증법적으로 더 적합할 것 같다. 더욱이 그가 보수정당을 탈당한 주된 이념적 이유가 DJ의 햇볕정책을 지지한 때문이라는 점은 호남 유권자들이 잘 알 필요가 있다. 박지연 대표와 유난히 친한 듯 보이는 것도 대북정책 철학 때문일지 모르나.

나는 10여 년 전 기업유치의 찍새이던 손이 이번 대선국면에서 중도진보개혁인 사들을 하나 둘 찍어 한 동지에 모이게 할 대선후보 찍새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김종인 할배도 곧 동참할 것 같고 정운찬 전 총리도 참여하기 바란다.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박원순도 찍어오면 좋겠다. 반기문인연애 마다하겠는가. 하나 더, 민주당 경선주자이긴 하지만 안희정 총남지사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가 하나마나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는 국민은 원강한 친문세력을 외면했다. 찍새가 바쁘게 생겼다.

로마제국에서 배우는 물 관리의 지혜

수관로 정비는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있어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엘니뇨 현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가옥침수와 교통통행 불편 등 빗발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즘들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추세다.

광주 도심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습침수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백운광장, 무등시장, 서석고등학교 인근 등이다. 특히 국지성 집중 호우에 취약한 이들 지역은 지난 2004년 태풍 '메기' 때 시간당 65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 400여동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매년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극락천 주변의 부족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 공사비 479억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가 완공 목표로 남구 봉선동 일대·백운광장~주월동을 거쳐 서구 치평동과 광주천에 이르는 하수관로 총 연장 5.9km를 신설·확장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익성이 목적이라고 해도, 그 특성상 도심지 주택

가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탓에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느끼는 사례도 많아 빠르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로를 굴착한 후 하수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교통체증은 물론 담장이나 건물 균열로 종종 민원이 제기된다. 실제 삼촌동 우미아파트 뒤편 하수관로 매설 구간은 경우 안전과 소음을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재개되기도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 주민의 불만을 시가 이해하고 주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사 재개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무엇보다 공사에 따른 불편함에도 내 이웃과 우리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 가짐으로 공익을 우선해 한 걸음 양보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 사례였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같은 민·관 소통의 성공은 '담이 알을 깔 때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가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기고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속담은 인류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로마문명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스로 마나(PAX ROMANA)로 불리는 수백년간의 로마 전성기, 그 중심에는 안정된 사회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목표에 입각한 수로, 도로, 건축물, 하수관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은 시민사회의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로마 제국의 토대였다.

이 가운데 백마는 단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다. 클로아카막시마(Cloaca maxima), 즉 잘 갖추어진 배수로는 로마가 인구 10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고, 배수로 덕분에 로마에서 사용한 물은 신속하게 터배레강으로 배출될 수 있었다. 천년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 날에도 하

社說

탄핵 기각설에 연기설까지 이 무슨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2월 내에는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현재가 지난 7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 중 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2월 22일에서 2주 후면 3월8일) 이정미 현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13일)에 앞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이다. 추가 증인 신청, 박 대통령 직접 변호, 대리인단 총사퇴 등의 지연책이 먹혀들 경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인 3월말 이후로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록 한 헌법정신이 왜곡된다.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측은 이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최근 '탄핵 기각설'이나 '탄핵 선고 연기설' 등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살'일 뿐이며 대통령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확인해서도 안 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재판관들의 심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설이어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권은 대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탄핵 정국에 더 집중해 탄핵이 반드사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돈 받고 집회 나가면 처벌 진작 시행했어야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어버이연합·고엽제전우회 등 특정 단체의 친정부 활동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집시법 개정안은 '선거법 50배 물'처럼 집시법에도 20배 물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면서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영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선거법 50배 물'처럼 집시법에도 20배 물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면서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영했다. JTBC보도와 청와대가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특급 진술이 나왔다.

며 관계 대모의 심각한 우려를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JTBC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주말 집회에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반 참가자는 2만 원,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유모차와 함께 오면 15만 원 등 탄핵 반대 집회에 금품이 오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관계 대모를 기祸·지시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대화 창구이자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을 위한 소통 채널이어야 할 정무수석실이 본연의 업무 대신 여론 공작을 지휘했다면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여야는 관계 대모를 통한 정치 공작이 발발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예술가들을 둘러싼 에피소드들은 언제나 흥미롭다. 완벽한 사실이 아닌, 때로는 상상력이 가미돼 재가공되는 경우 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다.

오래 전 관련한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에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멘델스존이 바흐 작품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멘델스존의 하인은 어느 날 시장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온다. 한데, 고기를 포장한 피름은 종이에 '요즘'이 그려져 있다. 바흐의 대표작 '마태 수난곡'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예술작품의 '발견'

음악사에선 대부호이자 예술 애호가 집안이었던 멘델스존이 14세 생일에 할머니로부터 악보를 선물받았다는 게 정설 중 하나다. 아마도 이런 영화적 설정은 멘델스존이 스무살이던 1829년, 바흐가 초연한 이후 무려 100년만에 다시 '마태 수난곡'을 연주한 '사실'에서 출발했을 터다. 멘델스존이 완벽하게 '부활'시킨 '마태 수난곡'은 지금도 여전히 연주되고 있다. '예술작품의 극적인 발견' 관련 에피소드라면 헬리스트 카잘스가 배수를 수제력과 시민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구축한 다'는 철학이다.

모음곡' 필사본을 발견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이 곡은 예전에도 연주된 적이 있었지만 인기를 누리지 못하다 카잘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생명을 얻었고 '첼로'의 성서'라는 지금의 지위도 획득했다.

최근 김승욱의 수필집 '뎌 세상에 살기'에 초판본이 복간돼 화제다. 작가가 갖고 있지 않은 초판본이 40년만에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고기를 포장한 피름은 종이에 '요즘'이 그려져 있다. 바흐의 대표작 '마태 수난곡'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나라의 헌책방' 주인공 윤성근씨는 녹본에 살던 원 소장자가 재개발로 이사하며 내놓은 책이다 속에서 발견한 초판본을 보관하다 기증했다. 출판사는 당시 편집을 세로쓰기까지 그대로 살리고, 뒤 표지에는 강운구가 찍은 작가의 젊은 시절을 넣어 책을 펴냈다.

'무진 기행' 등 작품 이야기, 김현·최하림과 동인지 '산문시대'를 펴내던 시절, 결혼생활 등에 대한 글이 담긴 수필집은 '작가, 생활인 김승욱'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눈 밝은 이들' 덕분에 우리는 풍성한 문화 자산을 갖게 됐다. 고마운 일이 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